

# 목정호 순환도로 · KTX 정치 총력

### 심민 임실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박희승·조배숙 의원 등 만나 현안 사업 강력 건의

심민 임실군수가 오랜 숙원사업인 목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KTX 임실역 정차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심 군수는 지난 12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목정호 순환도로 개설(620억원)과 국지도 49호선 선형 개량(495억원), 전라선 철도 KTX 임실역 정차(45억원), 임실을 이도지구 뉴:빌리지 사업(250억원)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다.

앞선 5일에도 심 군수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권영진, 조배숙 국회의원을 만나,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설득했다.

목정호 순환도로 개설 사업은 임실군의 최대 숙원사업 중 하나로 반드시 개설되어야 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전국 21개의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개설되지 않았으며, 6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댐 주변 도로의 납추구간 6.4km가 개설되지 않아 지역주민은 물론 임실군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의 교통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지역발전에 상당한 저해가 되고 있다.

심 군수는 "댐 건설 당시 국가에서 교통단절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도로 개설은 당연히 추진됐어야 할 사업인데 60년이 지난 지금까지 개설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2004년 섬진강댐 재개발 건설사업 설계 시 반영된 순환도로 개설 사업이 국가 재정상의 이유로 제외됐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국가 책임하



심민 임실군수가 오랜 숙원사업인 목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KTX 임실역 정차 등 지역 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총력을 펼치고 있다.

에 대안을 강구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선 5일 댐 관리 주무 부처인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심 군수는 "환경부가 국토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목정호 순환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지도 49호선 선형 개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과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심 군수는 "국지도 49호선(신덕~신평) 선형이 불량하고 노력이 협소한 상습 결빙 구간 개량과 서부권과 동부권을 연결하는 중요 국지도로 교통망 확충 및 목정호를 찾는 관광객들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 군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라선 철도 KTX 임실역 조기 정차와 임실을 이도지구 뉴:빌리지 사

업지원을 추가 건의했다.

심 군수는 "임실만 KTX가 정차하지 않아, 임실을 찾는 방문객 교통 불편 해소와 생활 인구 확대 및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고, 정주 인구 증가와 시설 개선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위해 이도지구 뉴:빌리지 사업지원을 강조했다.

이후 민주당 박희승 의원과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에게도 목정호 순환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도 717호선 국지도 승격, 국도 49호선 선형 개량 사업의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전라선 철도 KTX 임실역 조기 정차, 임실을 이도지구 뉴:빌리지 사업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심민 군수는 "정부의 건축재정 기조와 세수 결손 등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적극적으로 찾아가 군민들의 오랜 숙원사업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집중

### 남원시의회, 국회 대토론회 참석... 공감대 형성·유치 전략 논의

남원시의회(의장 김명태)는 소속 의원들이 1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남원시와 전북특별자치도, 박희승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남원시의원들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남원시장, 시민단체 등 700여 명이 참석한 대규모 행사로, '미래 치안환경 변화에 따른 제2중앙경찰학교의 필요성 및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2중앙경찰학교 남원 설립의 사회적 공

감대 형성과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김명태 남원시의회 의장은 "오늘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남원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영·호남 교통의 중심지이자 유휴 국유지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경제성이 뛰어난 곳으로, 제2중앙경찰학교를 설립할 최적의 입지라는 전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됐기를 바란다"라며, "남원시의회도 제2중앙경찰학교의 남원 유치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순창군, 체계적 겨울철 제설대책 수립

순창군이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계적인 제설대책을 수립한다.

군은 오는 11월 15일부터 2025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방위적인 제설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기간 중 위급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등 총 275개 노선, 564.2km에 달하는 관내 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주요 고갯길에 대한 특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은 강설 상황에 따라 총 4단계의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강설 예보 시부터 1단계를 발령해 취약 구간 사전 순찰을 강화하고, 대설경보 발령 시에는 최대 1,100여 명의 인력과 150여 대의 장비를 총동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군은 친환경 제설제 1,182톤을 비축했으며, 추가로 93톤을 확보



할 예정이다. 제설 장비로는 덩크트럭, 굴삭기 등 대형장비와 함께 마을 진입로와 이면도로 제설을 위한 트랙터 83대를 확보해 대비 태세를 강화했다.

특히 올해는 북흥면 담동리에 제2제설기지를 신설해 군의 제설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군은 재난문자를 통해 상습결빙구간과 도로통제 현황, 우회로 안내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내 집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고, 주민자율방재단과 협력해 골목길과 인도 제설에도 합을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지역 소식통

### 남원시보건소,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확대 시행

남원시보건소는 시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응급환자가 관내 지역에서 다른 지역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경우, 응급차량(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 구급차) 이용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리별 지급 기준에 의해 최대 15만원까지 가능하다.

남원시는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사업을 확대·변경하면서 지원 대상을 이송일 기준 남원시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서 고령자(65세 이상)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본인과 보호자만 신청할 수 있던 것을 대리인도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신청은 이송일부터 60일 이내에 남원시보건소에서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구비서류 및 기타 이송비 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보건소(063-620-7952)로 문의하거나 남원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군, 국가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30% 할인

임실군이 국가유공자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30%를 할인해 준다.

할인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의 가정용 사용량이다.

대상자 중 할인을 받고자 하면 유공자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심민 임실군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향상을 위해 많은 대상자가 요금 할인을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임실군청 상하수도과(063-640-283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시, 예산 확보 역량 강화 나서

남원시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 12일과 13일, 2일간 오헤브레이 호텔에서 국가예산 사업 담당 공무원 및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예산 확보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정책환경 변화의 이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 개념과 이해, 국가예산(공모)사업 대응 전략 등의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2025년 정부 예산안 분석을 통한 신규사업 발굴 내용을 깊이 있게 다지고 향후 국가예산 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에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사업 발굴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규 공무원들이 대거 참석해 국가예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실질적인 대응 전략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임실 김장페스티벌 인기 급상승

### 21일까지 신청접수 기간 연장

"김장 포기하지 마세요.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과 함께해서서 버무리기만 하세요."

올해 배춧값 등 폭등으로 김장을 포기하려는 이른 바 '김포족'이 급증한 가운데 맛이 좋고 품질이 우수하기로 잘 알려진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을 찾는 소비자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11월 12일까지 총주문량은 85톤(절임 배추 52톤, 양념 33톤)으로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군은 미처 주문 시기를 놓친 소비자들을 위해 오는 21일까지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한다.

이처럼 주문량이 많은 이유는 올해 여름 뜨거웠던 폭염 탓에 배추 생육이 부진하여 값이 치솟았지만 맛 좋고 품질이 우수한 임실 배추와 고추를 엄선하여 만든 김장재료를 합리적인 가격에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축제 현장에서 김장을 하는 '김장체험'과 택배 배송이나 현장 수령(드라이브 스루)으로 절임배추와 양념을 받아볼 수 있는 '판매행사'로 진행된다.

한편 임실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은 맛과 품질을 인정받아 2016년 첫해부터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총 101톤이 소진됐다.

이를 통해 5억13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등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성과를 올렸다. /임실=진홍영 기자

# 남원소방서, 가을철 산불 조심 당부

남원소방서(서장 김승현)가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은 불씨도 큰 산불로 이어질 위험이 큰 계절이 다가왔으며, 시민들에게 산불 방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지난 13일 당부했다.

산림청에 산불 발생통계에 따르면 2024년 쓰레기 소각 45건(19.6%), 입산자 실화 39건(17%), 담뱃불 실화 29건(12.6%), 재처리 부주의 25건(10.6%) 등이며 그 밖에 성묘객 실화, 건축물 화재, 기타 순이다.

산불 예방은 △정정 장소 외 취사, 야영,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 삼가 △입산 후 흡연 및 담배꽂초 투척 금지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 소지 자제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근접한 지

역에서 논두렁, 밭두렁·농산 폐기물 불법 소각 금지 등이다.

현재 남원소방서에서는 가을철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등산로와 산림 인접지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산불 방지 계도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가을철 산불 예방 교육과 주민 참여형 산불 대응 훈련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단체와 협력하여 산불 위험이 높은 구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김승현 서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도 큰 재산과 자연 환경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시민들에게 산불 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 임실엔 치즈

벨기에 출신 지명향 산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엔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엔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